

“관광메카 남대문시장서 세계각국 요리 맛보세요”

서울시 ‘푸드트럭 특화거리’ 조성 130m구간에 푸드트럭 13대 비치 상설 야외공연·프리마켓 등 운영

서울시는 관광 메카 남대문시장에 ‘푸드트럭 특화거리’를 조성한다고 24일 밝혔다. 쇼핑도 하고 먹거리도 즐길 수 있는 야간 명소를 만들기 위해서다. 푸드트럭 특화거리는 26일부터 10월 까지 남대문 시장 내 메사 쇼핑몰에서 삼익패션타운으로 이어지는 130m 구간에 들어선다. 총 13대의 푸드트럭이 매일 오후 8시부터 자정까지 세계 각국의 음식을 판매한다. 푸드트럭 외에도 상설 야외공연, 수공예품과 사회적 기업 제품을 만날 수 있는 프리마켓이



서리풀 푸드트럭존 운영 모습. /서울시

열린다.

시가 지난 2017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푸드트럭 특화거리’는 특색 있는 명소를 만들며 시민들에게 즐길거리를 제공

하는 사업이다. 푸드트럭 영업자들에게 안정적으로 장사할 수 있는 곳을 마련해주는 동시에 청년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시는 전했다.

그동안 푸드트럭 특화거리는 서초구 강남역 인근, 마포구 농수산물시장, 금천구 독산역 일대, 서대문구 인왕시장 등에서 조성·운영됐다.

시는 올해 자치구 공모로 선정된 중구 남대문시장 아동복 거리와 강남구 탄천·합수부일대에서 푸드트럭 특화거리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유동 인구가 많고 교통이 편해 시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으며 여러대의 푸드트럭이 영업할 수 있는 공간 확보, 행사성 일시적 운영이 아닌 상시·장기 운영이 가능한 곳을 중심으로 선정했다”고 전했다.

이날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2018년 5월 기준으로 서울에 등록된 푸드트럭은 총 527대이며 폐업률은 32.5%인 것

로 나타났다. 지난 2015년 98.1%에 달했던 폐업률은 2016년 46.4%에서 2017년 19.7%로 줄었다.

시는 푸드트럭 운영 활성화를 위해 창업 전 과정에 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영업 현장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하고 교육 이수자를 대상으로 창업자금도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이성은 서울시 소상공인정책담당관은 “푸드트럭 특화거리 조성사업은 시와 자치구가 협력해 지역문화와 경제를 동시에 활성화하는 사업”이라며 “지역 내 야간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워라밸’ 실천 중기 154곳 7000만원 지원

‘서울형 강소기업’ 추가 선정 총 532개 기업에 2년간 혜택

서울시는 워라밸(Work & Life Balance) 기업 문화를 실천하는 서울형 강소기업 154개를 선정하고 2년간 최대 7000만원의 근무환경개선금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청년실업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서울형 강소기업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형 강소기업은 정규직 비율, 서울형 생활임금 이상 지급, 일생활 균형 제도 운영 등 일자리 질과 기업의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된 곳이다. 올해 추가로 뽑힌 154개 기업을 포함, 총 532개 기업이 이름을 올렸다. 이번에는 보안감시 장비 제조업체인 ㈜영도시 큐리티를 비롯해 주식회사 세포아소프

- #. 소프트웨어 개발·공급 기업 ‘스튜디오씨드코리아 주식회사’에는 전화실, 휴게실, 도서관, 요가방, 샤워실, 수면실이 조성돼 있다. 탁구, 스크린야구 등 직원 동호회 활동이 활발하게 운영 중이고 무제한 휴가 제도와 재택근무 등 자율 근무제를 도입했으며 육아휴직 참여 비율이 높다.
- #. 줄기세포 엑소좀에 대한 글로벌 원천 기술과 특허를 보유한 ‘엑소코바이오’는 장기재직휴가 제도와 스톱옵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수직원은 해외연수의 혜택을 주고 있으며 탄력출퇴근제, 원격근무, 재량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다.

츠, 주식회사 메디랩 등이 선정됐다.

시는 이들 154개 기업과 7월 중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2년간 체계적인 지원에 나선다.

선정 기업은 2년 안에 서울에 거주하는 만 18~34세 청년을 신규로 채용하면 최대 7000만원의 ‘근무환경개선금’을 받을 수 있다.

여성 재직자가 30% 미만인 기업이 여성 청년을 채용하거나 뉴딜일자리 등 시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을 채용하면 우대한다.

인력 부족으로 육아휴직이 쉽지 않았던 중소기업에는 청년인턴을 최대 23개월간 배치해 육아휴직자의 업무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한다. 청년인턴의 인건비는 전액 시에서 지원한다.

조인동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서울형 강소기업이 청년이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 선순환 모델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경기도 10개 시군이 공공기관과 2차 홍보전략회의를 끝내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경기도

경기도 특성 살려 전략적 홍보 나서

경기도-10개 시군, 기관과 맞손

경기도가 경기도북부 10개 시군, 공공기관과 손을 잡고 북부지역 특성을 살린 전략적 홍보 활동을 펼친다. 공통 이슈를 기초로 한 홍보콘텐츠 개발과, 공공기관 보유자원을 활용한 홍보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3월 열린 1차 회의서 IPTV, 옥외전광판, 유튜브, SNS 등 도와 시군이 보유한 홍보 인프라를 활용해 북부지역 관련 주요 현안을 함께 홍보를 시작해 공중과 방송 취재 지원을 통해 연천 구석기 겨울여행, 일선 서구청 개청식, 한

탄강 지질공원센터 개소식, 구리시 플라마켓 행사 등의 콘텐츠에 대한 홍보 활동과 10개 시군의 홍보영상물을 경기도청 북부청사가 보유한 IPTV를 통해 상영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 유튜브 채널(경기도청, 피스~경기도청 등)을 활용해 경기도북부 5월 축제를 비롯, 각 시군에서 제작한 영상물들을 홍보했다.

아울러 노출도가 높은 옥외전광판·G버스TV 등의 매체를 활용해 북부 10개 시군의 명소를 널리 알리는데 주력했다.

/경기=김승열 기자 kimsy@

내달 북한산성 성곽 아카데미 개최

경기도-경기문화재단, 참가자 접수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이 문화유산과 역사에 관심 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2019 북한산성 성곽 아카데미 ‘북한산성 그리고 풍천유향’ 프로그램 참가 신청자를 선착순 모집한다.

‘풍천유향(風泉遺響)’은 조선 정조시대 송규빈이 군사문제에 관한 개선책을 논술한 저서의 이름이다. ‘북한산성 그리고 풍천유향’은 인문학 강좌로 조선 후기 북한산성을 중심으로 한 성곽방어체제와 18세기 이후 산성방어체제의 실상과 문 제점 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특히 이번 아카데미는 전문가와 함께 떠나는 탐방 프로그램으로 진행할 예정 이어서 참가자가 직접 북한산성을 보면서 역사와 의미 등을 쉽게 만날 수 있다.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상반기는 7월에 3회, 하반기는 10월에 3회 예정돼 있다. 회당 50명이 참가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지난해 ‘북한산성에서 놀자’ 프로그램을 진행 하고 있다. /경기도

구체적 일정을 확인 후 신청하면 된다. 참가대상자는 일반 성인으로, 참가 신청은 6월 24일부터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무료다. 하반기(10월) 모집은 9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다.

북한산성은 사적 제162호로 1968년 12월 5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됐다. 총 면적 494,516㎡ 중 고양시 구간이 353,922㎡(72%), 서울시 구간이 140,594㎡(28%)이다. 총 길이 11.6km 중 고양시 구간이 8km, 서울시 구간이 3.6km다. /경기=김승열 기자

노원 서울과기대서 27~28일 ‘특허캠프’

서울 노원구는 27~28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테크노큐브동에서 ‘2019년 제1회 특허 캠프’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캠프는 신산업 발명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특허 출원 교육을 통해 구민의 지식재산에 대한 이해와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된다.

교육은 ▲아이디어 창출 및 선행기술 조사 교육 ▲특허명세서 작성실습 ▲특허출원 및 특허정보검색 ▲조별 아이디어 발표 등으로 구성됐다.

구는 캠프 참가자 중 우수 아이디어 팀을 선정해 시상한다. 변리사를 통한 특허 출원과 시제품 제작 지원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

캠프는 구민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행사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수강료는 무료다. /김현정 기자

MICE 중기 ‘종합 컨설팅’ 원스톱 지원

서울시, MICE산업 지원센터 개소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은 25일 ‘서울MICE산업 종합지원센터’의 문을 연다고 24일 밝혔다.

MICE는 기업회의(Meeting), 포상 관광(Incentives), 컨벤션(Convention), 전시(Exhibition)의 머리글자를 따 용어로, 이들 네 분야를 포괄하는 서비스 산업을 의미한다.

센터는 서울 소재 MICE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법무, 세무, 노무 등에 관한 종합 컨설팅을 제공한다. 주요 경영 이슈에 대한 상담을 지원, 전체의 85%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매출 규모 10억원 미만) MICE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목표다.

접수부터 상담까지 전 과정이 원스톱

으로 진행된다.

서울관광재단 8층에 위치한 서울MICE산업 종합지원센터 내 전담 콜센터에서는 기업의 컨설팅 요청사항을 분석해 분야별 전문가와 매칭한다. 센터방문 상담, 컨설턴트 현장 방문 등 종합 컨설팅을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할 계획이다.

월요일에는 노무, 수요일에는 세무, 금요일에는 법무 자문을 제공한다. 해당 분야 전문위원이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센터에 상주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MICE산업 종합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주용태 서울시 관광체육국장 “서울MICE산업 종합지원센터가 MICE 중소기업의 강소기업화 창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